

‘서틀콕 천재소녀’ 났다

광주체중 안세영, 대표 선발전서 대학생·실업선수 꺾고 7전 전승

여중생 첫 태극마크 도쿄올림픽 기대주로

광주체중 3학년 안세영(15)이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대표팀에 발탁됐다.

안세영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군산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2019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단식 B조에서 출전해 같은 조인 국내 랭킹 2위이자 현 국가대표 이장미(23·MG세마을금고)를 2-1로 꺾는 등 현 국가대표를 포함한 실업 선수 4명과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모두 제압해 7전 전승(조 1위)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따냈다.

중학생이 선발전을 통해 대표팀이 된 것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최하다.

남자 배드민턴의 이용대도 중학교 때 발탁됐지만 이는 선발전을 거치지 않은 추천 선수였다.

안세영은 주니어대표로서 국가대표 랭킹이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는 안세영의 경기력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선발전에 출전해 볼 것을 추천했다.

총 7명을 선발하는 이번 선발전은 조별 1~2위는 자동선발, 조별 3위 선수 간 5위 결정, 나머지 2명은 위원회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경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15살 소녀가 자격으로 우승을 한 것이다.

안세영은 광주 풍암초등학교 1학년 때 동호인이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코트장을 자주 찾아 라켓을 쥐었다.

그렇게 서틀콕과 인연을 맺은 안세영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3년부터 민첩한 운동신경과 지구력을 바탕으로 주니어 대표로 활약하며 국내·외 주요 대회 우승을 휩쓸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주니어 혼합단체전에서 홈팀 인도네시아에 1-2로 뒤지던 상황에서 자신보다 3살 많은 상대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활약을 펼쳐 한국을 11년 만에 정상으로 이끌었다.

11월에는 경남 밀양에서 열린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선수권에서는 2013년 대회 때 우승한 이후 올해까지 5년 동안 우승을 놓치지 않는 등 차세대 유망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170cm가 넘는 키로 타점 높은 공격과 넓은 수비범위를 자랑하는 안세영은 광주체육중 장아을 코치의 지도 아래 네트 앞 플레이와 각양 조절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한 결과 지난 밀양대회와 이번 선발전에서 헤어핀(hairpin)을 활용한 득점이 늘어나는 등 어린 나이지만 단식에 걸맞는 스트로크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2019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단식 B조에서 7전 전승으로 태극마크를 단 광주체육중 안세영이 힘차게 스매싱하고 있다.

은 수비범위를 자랑하는 안세영은 광주체육중 장아을 코치의 지도 아래 네트 앞 플레이와 각양 조절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한 결과 지난 밀양대회와 이번 선발전에서 헤어핀(hairpin)을 활용한 득점이 늘어나는 등 어린 나이지만 단식에 걸맞는 스트로크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체육중 김명자 감독은 “선배들에

게 주눅들어서 경기가 힘들게 갔었는데 자격으로 우승에 태극마크까지 달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세영이는 중학생이지만 자기관리나 위기대처능력이 탁월해 차근차근 노력한다면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것이다”며 안세영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귀화 국가대표 예카테리나 전남에 첫 금메달 선사

동계체전 바이애슬론서

러시아 귀화 국가대표인 예카테리나 알바쿠모바(28, 전남체육회)가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경기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7시에 강원도 알펜시아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예카테리나는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에 출전해 51분 5초6의 월등한 기량을 뽐내며 1위로 끝인해 금메달을 목

에 걸었다.

러시아 태생으로 지난 2016년 12월 한국에 귀화해 전남바이애슬론경기연맹 소속으로 현재 국가대표로도 활동 중인 예카테리나는 2015년 하계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 우승을 비롯, 제98회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전남바이애슬론 여일부 선수단은 또 다른 러시아 출신 국가대표인 안나 프롤리나(34·전남체육회)를 비롯해 추경미(32, 전남체육회), 조인희(29, 전남연

맹), 김미선(31, 전남연맹)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스피리트와 계주경기에서 금메달 획득이 예상되 작년 98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일부 전종목 석권 이어 2연패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최로 종합순위 미실시 및 종목별 대회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은 6종목 201명(선수 120, 경기임원 41, 본부임원 40명)이 참가하여 14개의 메달(금 8, 은 2, 동 4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창 티켓 잡아라” 피겨 국내 최종 선발전 내년 1월5일 개막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이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최종 선발전 ‘KB금융 코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8’을 통해 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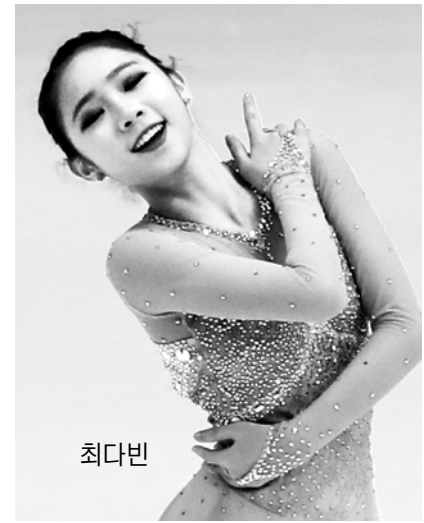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7월에 열린 1차 대회, 이달에 열린 2차 대회와 이번 대회 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여자 싱글은 총 2명의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최다민(수리고)이 1, 2차 선발전에서 350.16점을 획득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하늘(명준중·333.35점)과 안소현(신목고·319.93점)이 뒤를 잇고 있다.

최다민은 3위 안소현과 30점 이상 차이 나 이번이 없는 한 평창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싱글은 단 1장의 티켓이 걸려있다. 현재 이준형(단국대)이 459.1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차준환(휘문고)이 431.58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두 선수의 격차는 27.54점이다. 차준환은 필살기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로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준형은 쿼드러플 점



최다민



이준형

프 대신 안정적인 연기로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자 싱글은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이이스 댄스는 민유라-알렉산더 게릴린 조가 유일하게 출전해 올림픽 티켓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올림픽 선발전 외에도 세계선수권 대회와 세계주니어선수

권 대회 출전선수 선발전을 겸한다.

나이제한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유영(고천중), 김예림(도장중), 임은수(한강중)가 세계주니어선수권 출전을 놓고 경쟁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대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심판을 초빙했다.

연합뉴스

IOC “리 봅슬레이 썰매 빨간색, 진홍색으로 바꿔라”

러시아 출신 연상 안되게 규제

도핑 조작 스캔들을 유발한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엄격한 복장 규제에 나섰다.

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IOC는 러시아 봅슬레이연맹에 대표 선수들의 봅슬레이에 도색된 빨간색을 진홍색(암적색)으로 바꾸고 선수들의 유니폼 디자인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세르게이 파르코멘코 러시아 봅슬레이연맹 사무총장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IOC가 선수들의 유니폼에 박힌 빙글빙글 도는 듯한 문양을 러시아 고유의 상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봅슬레이 썰매에 러시아 국기를 떠올릴만한 붉은 색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IOC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개인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복과 장비 규정을 결

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경기복과 장비에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등 3색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경기복에 빨강과 파랑을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 출신임을 떠올릴 수 없게끔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바꿔야 한다.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러시아 국기와 국가명을 단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을 불허했다. 대신 도핑테스트를 통과한 ‘깨끗한’ 선수 중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의 계절불가

12월 30일(토)

▲광주호산회 12월 30일(토) 덕유산 황적봉,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12월 31일(일)

▲광주호산회 12월 31일(일) 한해를 마감하는 지리산 천왕봉 일출산행, 12월 30(토) 영주체육관 23:30, 무각사 23:40, 비엔날레주차장 23:50,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앞 24:00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

1월 1일(월)

▲광주도요산악회 1월 1일(월) 완도 삼문

산 신년 해맞이산행, 광주역 04:10, 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 010 3608 4267

1월 6일(토)

▲광주호산회 1월 6일(토) 지리산 만복대,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1월 13일(토)

▲광주도요산악회 1월 13일(토) 태백산 눈꽃산행 무박2일, 23:30 풍암동 롯데마

트 7주차장, 24: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1월 13일(토)~14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1월 13일(토)~14일(일) 대마도, 영주체육관 새벽 24:00, 무등경기장 24:20, 동광주홀플러스 24: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월 14일(일)

▲광주호산회 1월 14일(일) 지리산 천왕봉(중산리~천왕봉~백무동), 영주 모아레포즈 입구 06: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6:30, 비엔날레주차

1월 13일(토)

▲광주호산회 1월 13일(토) 태백산 눈꽃산행 무박2일, 23:30 풍암동 롯데마

장 06:5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1월 20일(토)

▲광주호산회 1월 20일(토) 연화산,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주식매면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17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15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50,000원의 주식 10주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주권발급 기일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14일까지 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원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에이동 116-2호 (오봉동, 광주과학기술원 광업지원센터) 대표이사 이민수

1월 27일(토)

▲광주호산회 1월 27일(토) 해파랑길 8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6: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3633 3723

이름 [작명, 개명]

●사람의 이름은 창되고(眞) 신하(眞) 아름다워(美) 합니다.
●正名順行 이름이 바른 모든 정명 순행 일이 순조롭다 -논어-
●이름, 개명, 법안상호, 개업상호 *시외는 팩스 또는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작명 전문 광주이름나라
NAVER 광주이름나라
전화문의 환영 | 010-6808-1693 (062) 365-3400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신과함께-죄와벌
2관	신과함께-죄와벌,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3관	신과함께-죄와벌, 기억의밤
4관	강철비
5관	신과함께-죄와벌
6관	신과함께-죄와벌
9관	몬스터 패밀리,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7관세커룸	강철비, 극장판 포켓몬스터 너로 정했다!
8관세커룸	위대한 소맨

단체 및 대리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꿈꾸는 화가	12.6(수)~31(일) 광주문화예술회관갤러리
Adieu 2017	12.31(일) pm8:00 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19(금) pm7:30 1.20(토) pm3:00, 7:30 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
2018신년음악회: 신세계	1.25(목) pm7:30 2018신년음악회: 신세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